

구세주는 인류를 영생의 존재로 만듭니다

왕의 반열에 서는 의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

왕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 만민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왕 노릇을 영원무궁토록 하게 됩니다. 왕의 반열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구세주와 같이 광명한 빛은 아니어도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취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왕의 명령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왕의 반열에 서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왕을 반열대로 서서 금길 다닐 때 항상 이 찬미하네'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한 번 불러보세요.

생명과일의 실체는 구세주의 얼굴

성경 상에는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었지만 그 생명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일이 영생의 영인고로 사망의 영을 이기는 영이요, 사망의 영을 소멸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일은 바로 구세주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감로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감로이슬성신이 생명과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얼굴을 초초로 바라보면 마음으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마음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일인 구

세주의 얼굴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얼굴이 안 새겨지면 구세주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구세주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 얼굴 같으면 마음에 잘 떠오르죠? 그런데 구세주의 얼굴은 왜 잘 안 떠오르는지 아세요? 구세주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신인고로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과일을 항상 먹어야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면 바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일을 계속해서 먹었다가 되면 바로 이진자가 되었다가 되고 구세주가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면 생명과일이 마음속에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항상 구세주의 얼굴이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었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진자가 되었다가 되고 온전자가 되었다가 되어야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면 바로 구세주가 되면 다시는 그 마음이 변하려야 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고로 항상 그 마음속에 구세주의 얼굴이 새겨지게 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생명과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흉과 티가 없고, 죄에 오염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구세주가 죄를 담당해줌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이루어지게 돼

여러분 가운데 감기 걸린 사람들 손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감기 걸린 사람들의 감기가 전부 이 사람한테 오염됩니다. 이 사람이 단상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기가 이 사람한테 오염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기를 오염 받아서 이 사람이 담당을 해주어야 감기가 낫지, 이 사람이 담당을 안 해주면 그 감기가 낫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죄를 전부 이 사람이 담당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담당 안 해주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죽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담당해줌으로 말미암아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좋죠? 구세주가 무던히 좋은 이제 그대로 영적 엄마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유지되어 나가는 거지. 담당을 안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씩 무더기로 쓰러

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지 사망을 부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구세주가 생명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게 분명하죠?

구세주는 우리를 영생의 몸으로 만드는데 중

구세주가 자나 깨나 항상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마귀를 소멸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가도 낫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까닭은 바로 구세주가 이제 폭포수처럼 생명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못 받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제 구세주가 은혜를 부여하는 거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부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구세주가 시간 시간이 은혜를 부여하게 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점점 보강되어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구세주가 죄인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어

성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써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의미의 말씀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6000년 전에 하나님이었으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이 마귀에게 침투를 당해서 주체영인 나라는 의식의 하나님이 마귀 욕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주체영이 되는 순간 바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인 나라는 의식의 영을 일 초도 안 걸려서 완전히 소멸시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나라는 의식이 되도록 하는 일을 구세주가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중쉬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쓰고 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면 승리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고로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승리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보강되어서 계속해서 마귀를 승승장구로 이기게 되어 있는고로 영생을 누리게 거지 승리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2년 1월 11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노화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메카니즘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현상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그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많은 논리적 허점들이 깔려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왜 늙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심중팔구는 잘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진지하게 말해 우리가 노화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대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할 뿐이지, 인간 속에서 또는 생명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신적 생리적 화학적 반응과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인류는 노화를 필사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 실험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그들이 미처서 그럴까? 아니다. 그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구 통계 및 노인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장 로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연구교수는 "인류 기대수명이 110세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지난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에 참석해 말했고, "과거 200년간 인류의 생존 곡선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인류 기대수명이 110세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또 로빈 교수는 "1816년부터 최근까지 프랑스 인구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장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100세를 넘기 힘들었던 인류 기대수명이 90세에 다다랐고, 기대·건강수명이 불가능이라 여겼던 110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위와 같이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에 참석한 노벨상 수상자들과 노인학·고령학 분야 세계적인 연구 석학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노화에 대한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유전자 분석, 줄기세포, 장내 미생물, 후성유전학, 유전자 치료 등 인간의 장수를 이끄는 과학기술이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류 수명을 점차 늘릴 것으로 보고 인류 100세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인학 창시자로 불리는 톰 커쿠우드 영국 뉴캐슬대 교수는 "노화는 인류

가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인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기대수명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고령화가 경제·사회·정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지난해 미국 노화 연구자인 스티브 오스태드 미국 앨라배마 버밍햄대 교수가 "2150년까지 인류 기대수명이 150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후보 물질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난 2000년 동안 영생을 위한 연구에 끊임없이 매달려 왔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애써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상황은 반전됐다. 인간 수명 150세 시대가 단순히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노화연구 석학으로 불리는 박상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는 "DNA 연구로 노화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

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면서 노화를 되돌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젊은 세포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노화 세포는 그렇지 않지만 늙은 세포는 젊은 세포와 달리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신체에 큰 변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노화 세포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바꿀 수 있다면 노화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기 2045년 죽음과 질병을 극복한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머지 않았다. 인류는 냉동보존 기술을 통해 영생을 맞이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인간 평균수명 100세를 의미하는 '호모헌드레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실리콘밸리 벤처를 중심으로 과학 불로초를 찾기 위한 전방위적인 연구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화를 연구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 '암브로시아'는 젊은 사람의 피를 고령자에게 투여하고 회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젊은 피를 수혈해 젊음을 되찾겠다는 시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젊은 피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닌 진짜 '피'

다.

노화를 극복하는 실험들

미국 UC버클리대의 이리나·마이클 콘보이 부부는 혈액을 교환함으로써 인체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10여 년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최신 연구는 생후 3개월 된 어린 쥐와 23개월 된 늙은 쥐의 혈액을 절반씩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과는 역시 긍정적이었다. 늙은 쥐가 혈액 교환 하루 만에 젊어지기 시작해 5일째에는 손상된 근육까지 회복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제시 카마진 암브로시아 최고경영자(ceo)는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1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암브로시아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인간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벤처만 수십 곳에 달한다. 대부분 생물학 분야 저명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방증하듯 몽치돈이 벤처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구글은 생명공학 기업 '칼리코'를 설립하고 장수 동물 DNA 분석을 통

인간의 노화와 죽음은 자연적 현상인가

해 인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분자나노재료연구실은 수천 개의 노화세포 제거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노화세포' 제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인간 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명의 기본 단위인 DNA를 교정하고 3D프린터로 만든 장기를 몸매에 넣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박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과학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는 시도는 이제 막 첫발을 떤 단계"라며 "호모헌드레드 시대가 과학을 통해 앞당겨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간은 왜 노화현상이라는 극히 자연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것처럼 억척같이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노화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느끼는 갈등과 괴로워서, 그것은 몹시도 부자연스럽고 공포스러우면서도 피치 못하게 덮여 써워진 타력에 의해 조장(助長)된 무엇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해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할 수만 있으면 짧게 오래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은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신(神)의 속성 진(眞), 선(善), 미(美)이자, 본성과도 다름아닌 것이다.*

김주호 기자